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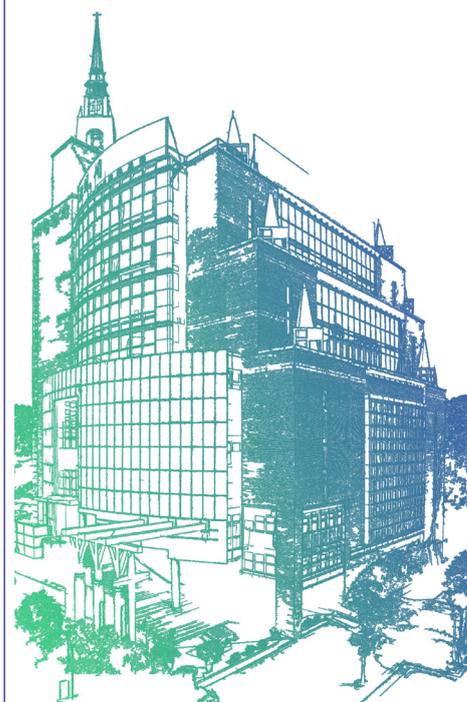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아모스**

재앙의 날이 다가올 때

(아모스 3 : 9~15)

원로목사 **이종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올 때 나팔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군인과 지도자들을 약하게 하므로 적군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면서 마지막 심판의 나팔소리로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는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종교지도자와 부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심판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되는데 특히 각계 지도자들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1. 심판 중의 공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어나 결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12절).

심판은 사자가 양을 잡아먹듯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자의 입에 들어가지 않은 두다리와 귀조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곧 남은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각가지 방법으로 재앙을 피하는 모습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어느곳도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간 양의 두 다리와 귀조각 같이 사자가 다 삼키운 바 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두다리와 귀조각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시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2. 피할 수 없는 심판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15절).

여로보암왕때 이스라엘은 물질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암3:11)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은 상아로 장식한 사치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겨울 궁과 여름 궁에 가서 종들을 풀어주고 그 곳에 숨어있으면 아무도 모를터이니 심판을 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곳 역시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13-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숨으면 안전

할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단에는 희생의 제물이 있는 곳이므로 제단의 뿔에 매달리면 안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예배는 형편없이 타락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되지 않은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단이 거저되었고 가증한 제물을 바쳤으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위선적이고 가증되며 더러운 예배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종교의 이름도 소용없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6:15-17).

물질로 방어벽을 쌓고, 제단안에 숨고, 종교적인 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땅위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며 공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판단대로만 된다면 잔재주를 부리며 살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 날에는 감추어진 것이 없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은 아무도 모르게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의 피가 소리를 치고 땅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창4:10). 우리가 감추고 행한 악한 일들이 소리를 치고 일어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에는 숨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빛에 비추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종말에 비추어 오늘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살고, 천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죽을 사람처럼 순간 순간을 보람되고 뜻있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실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여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7 여름 성경학교 은혜중에 시작하다

오늘 사랑부 「구원의 영웅」

청년1부 : 7월 17일(월)~20일(목), 고성 대진중앙교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월 23일(주)	706호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Holy!	강남희 전도사
유치부	7월 30일(주) 2~4시	702호		
유년부	7월 28일(금)~29일(토)	아가페타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최근영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7월 21일(금)~22일(토)	아가페 타운	하나님의 거룩성 회복	윤누가 목사
고등부				
청년1부	7월 17일(월)~20일(목)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서준권 목사
청년2부	8월 14일(월)~15일(화)	아가페 타운		
사랑부	7월 8일(토) 7월 9일(주)	아가페 타운 서울교회	구원의 영웅	서명철 목사 서준권 목사 주원순 전도사



다락방 리더훈련 종강

7월 12일(수)

다락방 방학 : 7월 21일(금)부터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 9월 6일(수)
다락방 개학 : 9월 8일(금)

상반기 다락방 리더훈련이 7월 12일(수)에 종강한다. 이 날 모든 다락방 리더들이 참석하여 교구목사들로부터 방학 기간 동안 다락방 식구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받는다. 개강은 9월 6일(수)이다.

혹서기를 맞아 다락방 모임도 7월 14일(금)까지 모이고 방학한다. 다락방 개학은 9월 8일(금)이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지정기부금으로 이어져

지난 3월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기관 최초로 개설된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에 대한 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체험하고자 각 학교에서 체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지난 순례자(2017년 5월 28일)에 기고된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지정기부금 이어져' 기사를 호산나대학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고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기부금을 보내고 있다. 최근 6월에 호산나대학 박종훈학생 부모님이 100만원, 박민재 학생 부모님이 100만원, 강해민 학생 부모님이 200만원을 애견케어학과에 지정기부를 하였다.

호산나대학은 학부모님의 기부금에 감사드리며 애견케어학과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견관련 전문 인력이 양성 될 수 있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예수의 비유

가라지 인생
(마 13:24-30)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장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 책이다. 본문은 '천국은 마치' 라는 말로 시작된다. 여기서 '천국'은 단순히 공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실레아,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한다.

본문은 한 군데의 밭에 씨와 뿌린 자가 각각 다름을 말씀한다. 이것은 세상의 악한 것의 영향이 선한 것의 영향보다 더 쉽고, 더 크게 그리고 더 넓게 퍼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안에는 알곡 뿐 아니라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곡식 사이에 뿌리고 갔다고 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릴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밭에 나쁜 씨들이 뿌려졌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빨리 알아채야 하는데 나쁜 씨들도 겉으로는 진실을 표방하고 있어서 분

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마귀의 사술에 매여져 있으면서도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알고, 자신도 모르게 가라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라지는 거짓된 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생활로부터 나온다. 가라지는 자기를 위해 알곡이 먹어야 할 영양분까지 빼앗으므로 알곡까지 죽여버린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또 우리 심령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알고 늘 조심해야 한다.

가라지는 언제 나타나며 가라지 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썩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마 13:26). 가라지는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전이요 따라서 거짓말 하면 성령이 들으시고 근심하신다. 또한 남을 저주하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인도함을 거부하고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거짓 신자요 가라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가라지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또 그 처세가 위선적이고 교활하고 교만하다. 그러면 이런 가라지를 빨리 잘라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라지 인생 가운데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

다.

교회는 문제아가 모이는 곳이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만일 교회가 의인만 모이는 곳이라면 우리 가운데 교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곳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3)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우리 속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그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말씀은 권징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성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권징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 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에게에는 온유하고 가엾은 심정으로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탕감 받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윤리는 시간과 공간을 따라 바뀌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약과 법은 영원한 것이다. 가라지 인생이라 할 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변하여 알곡 인생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라지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청년부수련회에 초대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정상준 성도 (청년부 회장)

부족한 저희를 항상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될 2017년 청년 1부 국내 전도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작년 보다는 작은 규모로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번 국내 전도를 통해 구원 받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흠뻑 젖어졌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에는 국내 전도 준비를 위해 서준권 목사님, 정철웅 집사님 그리고 청년 1부 임원단과 함께 고성 대진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대진중앙교회 김춘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번 국내전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흘려 보냄이 고성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믿지 않는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교회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이 만민 전도라는 교회의 목표를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있어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청년 1부 국내 전도에 함께 해주시는 전도위원회, 권사회, 그리고 의료선교부의 도움으로 고성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득히 전달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이번 국내 전도에 더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나아가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울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① ⑤ 설레임으로 서울교회 전도팀을 기다리고 있는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②③④ 2016년 국내전도 -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노방전도팀과 식사준비팀 이마용팀



강원도 고성 국내 전도팀에서 기증품을 기다립니다

7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될 강원도 고성 농촌 전도가 무척 기대됩니다. 벌써 3년째 방문하는 고성의 대진중앙교회에서는 벌써부터 서울교회 전도팀을 맞을 날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전도팀도 최고의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권사회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에서 고성팀에 보낼 의류와 신발등을 선별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도 고성에 보내시고자 하는 기증품이 있으시면 이번 수요일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필요물품 : 남·녀 의류, 아동 의류, 각종 신발, 소형가전, 새 수건, 가방, 잡화 등

나의 하나님

기념비

정을순 집사 (16교구)

뜨거워서
뜨거움에 못 이겨
정수를 타고 흘러 내리는
기쁨의 송가
순고한 첫 사랑의 태동이 느껴지는가
찬 이슬에 맺힌
목상의 말씀
굳어진 영혼을
소성케 하고
기도의 작은 샘들이 모여
은혜의 강을 이루었다

세상의 나침반
민족의 구원선
이웃의 등대
복음의 불 밝혀
달려온 길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서울교회
고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

들 백합화
그 향기에 비하랴
구리빛 그늘린
땀 내음새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말 만해도
우리는 느끼지 않았는가
이제 지나온 그 길목에
하얀 백합화 다시 피어나리

지금은 걸렁 걸렁
찬 바람 부는 길목에
슬피 서 있는 고목
당신의 헌신
못다한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기억을
간증 담아
작은 기념비로 네 옆에
꽃아 놓으리
우리 아이들이
찬송 부르며 지나갈
그 길목에

